

2018

봄

광운을 담다

광운을 담다



광운
소식

Kwangwoon
Newsletter
Vol.110



빛나는 오늘을 닮고
빛나는 내일을 담은
참빛의 광운입니다!



Contents

총장 인사말

광운을 닮다

- 06 다짐을 닮다 - 제10대 유지상 총장 취임식
- 09 지식을 닮다 -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외 특강
- 12 당신을 닮다 - 수학과 김태균 교수
- 14 마음을 닮다 - 제23대 김대철 총동문회장
- 16 사랑을 닮다 - 우간다 초등학교 새 교실 짓기
- 18 광운에게 묻다 - 광운의 강점

광운을 닮다

- 20 미래를 닮다 -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선정
- 22 진로를 닮다 - 진로박람회 개최
- 24 문화를 닮다 - 중앙도서관 문화예술 주간 행사
- 26 청춘을 닮다 - 청년 일일케어
- 27 연구를 닮다 - 방위사업연구소 선정
- 28 광운 동정 - 캠퍼스 & 교수 및 학생 동정
- 35 광운과 함께 - 발전기금 안내 및 약정명단

광운소식 2018 Vol.110

발행일 : 2018년 2월
발행인 : 유지상
편집인 : 김정권
발행처 : 광운대학교 대외국제처 홍보팀
전화 : 02-940-5504~5
팩스 : 02-940-5506
주소 : 01897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제작 : 감카뮤니케이션 02-733-2878

총장 인사말

취임사(전문)



이제 ‘광운 웅비’를 위해 다시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찬 (재)우당장학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신철식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 여러분, 그리고 조무성 초대총장님을 비롯한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운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광운대학교 제10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광스러운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시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총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맞물려 무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중심에 있는 대학은 새로운 인재의 양성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더욱 거세게 요청 받고 있습니다. 창학 84년을 넘기고 있는 우리 광운대학교는 나라 앓은 슬픔과 냉전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도 인재양성의 산실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이미 누구나가 다 아는 ‘광운전자’라는 이름이 더욱 뚜렷하게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광운대학교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중심대학의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과 사회, 그리고 구성원 모두가 원하는 소위 ‘글로컬 멀티-유니버시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국가 발전의 핵심 요건이 되고, 사회의 낮은 부분 까지 살필 수 있는 따뜻한 교육 공동체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오늘 광운대학교 제10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대학 발전에 대한 몇 가지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광운은 안정돼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구성원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크고 작은 혼돈과 아픔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아직도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원간의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모두가 소통하는 광운대학교의 비전을 다시 정립하고, ‘글로컬 멀티-유니버시티’의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초지능, 초연결 사회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적으로는 구성원들의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도 대학 평가라는 힘든 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학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총장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총장 선출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교수님, 직원 선생님, 또 학생 여러분 모두, 각자 직무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광운의 안정이고, 광운의 재도약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광운도 시대적 변화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일찍이 설립자이신 화도 조광운 박사님의 예견처럼 ICT 기술의 발전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대미문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으로서 광운대학교의 역할도 당연히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여러 현실도 그리 농록치 않습니다. 학령인구의 급감, 대학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재정위기, 교육 활동

에 대한 교육부 평가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 잘못 대응하면 ‘한계대학’으로 추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잘 대응하면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광운대학교도 급격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 대학 내 구조 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먼저 정직하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언제나 솔선수범하는 혁신적 실천자세로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외에도,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최적의 타이밍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해내는 스마트한 혁신의 리더십을 갖추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광운은 응비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광운대학교는 창학 8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정보통신과 전자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배출된 광운의 인재들은 근대화와 산업화라는 막중한 시대적 소명을 다해 왔습니다.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는 수많은 광운 동문들의 일화가 그것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 광운은 활약에 비해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저평가 우량주’의 신세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광운은 새롭게 응비해야 합니다. 명실공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명문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광운의 응비전략을 ‘글로컬 멀티-유니버시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운대학교는 글로벌 전략과 지역중심 발전전략을 함께 구사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 와중에 구성원 모두가 원하는 ‘멀티’의 개념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역량교육 시스템의 재정비, 신개념 복지서비스의 실현, 효율적 산학협력 시스템의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의 조성 등을 통해 여러분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글로컬 멀티-유니버시티’의 실체를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넷째, 광운은 소통해야 합니다. 그동안 총장 선출 과정에서 저는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아울러 학교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논의를 거쳐 해결책을 찾아내는 ‘소통의 민주주의’가 필요함을 또한 주장해 왔습니다.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결속력을 다져 모든 구성원과 대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항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덕적 동기부여를 통해,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원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하게 된다면 우리 광운대학교는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 산학협력, 평생교육,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운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교수님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직원 선생님과 존경하는 광운 동문 여러분! 지난 세월 광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주신 많은 교수님들, 불철주야 형설의 공을 쌓아 왔던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항상 수요자 중심 행정을 위해 혁신적으로 노력해 왔던 직원 선생님들, 또 대학의 발전과 후배 사랑을 위해 몸소 애써 주셨던 동문님들, 이 모든 분들의 정성으로 지금의 광운이 이루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광운 응비를 위해 다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에 저는 오늘 총장에 취임하면서 ‘소통하는 광운대학교!, 신뢰회복을 중심으로 멀티-유니버시티로 확장 발전하는 광운대학교!, 세계로 응비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컬 광운대학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광운대학교!’로 거듭나게 할 것을 꼭 약속드립니다.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모든 광운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1일
광운대학교 제10대 총장 공학박사

유 지상

광운을 닮다

광운과 광운동문을 이끌어 갈 새로운 수장들의 다짐을 듣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내외 지식인들의 명강의도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선정된 교수님도 만나뵙고
작지만 큰 울림을 주는 학생의 사랑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광운을 닮다!

각 분야에서 최고로 빛나는 광운인들,
광운의 참빛으로 닮아 갑니다.



Sit scientia lux mea

다짐을 닦다

제10대
유지상 총장 취임식



광운대학교 제10대 유지상 총장 취임식

○일시 : 2018년 2월 1일(목) 11:00 ○장소 : 동해문화예술관 소극장

광운대학교
KwangWoon University



- 제10대 광운대학교 유지상 총장 취임식 -

ICT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광운과 함께 갑시다

학교법인 광운학원(이사장 신철식)은 광운대 전자공학과 유지상(劉智相, 56세) 교수를 제10대 광운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유지상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18년 1월 10일(수)부터 4년간이다. 취임식이자 대한민국 대표 ICT 명문대학 광운대학교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이기도 했던 그 현장을 지금부터 소개한다.

경





유지상 제10대 광운대 총장의 취임식이 지난 2018년 2월 1일(목) 오전 11시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신철식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 김대철 광운대 총동문회장, 이종찬 (재)우당장학회 이사장, 이종걸 국회의원, 이정구 성공회대학교 총장, 조경식 방송통신위원회 기조실장, 구원모 전자신문사 대표, 조명식 디지털타임스 대표 등 내·외빈 및 대학 교직원, 재학생 등 약 500명이 참석하였다.

유지상 총장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총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스마트한 혁신의 리더십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극 동참하여 광운대학교가 ICT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전략과 지역 중심 발전전략을 통한 광운의 응비전략으로 ‘글로컬 멀티-유니버시티’를 제시하며 역량교육 시스템의 재정비, 신개념 복지서비스의 실현, 효율적 산학협력 시스템의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의 조성 등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원하는 ‘멀티’의 개념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 총장은 모든 정책에서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해결책을 찾아내는 ‘소통적 민주주의’를 언급하며 구성원 모두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결속력을 거듭 강조했다.

이종찬 (재)우당장학회 이사장은 축사에서 “젊고 혁신적인 총장이 광운대의 응비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열린 마음으로 공감의장을 만들어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도 소통하는 광운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지상 신임 총장은 충암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공학 석사, 미국 페드대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광운대 전자공학과 교수로 부임해 정보통신처장, 정보과학교 육원장을 거쳤다. KBS 경영평가위원, 미래창조과학부 ICT정책고객대표자회의 위원, 차세대방송기술협의회 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자문교수 등을 맡고 있다.

지식을 넓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외 특강



2016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존 마이클 코스털리츠 교수

- 제112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동계직무연수 광운대서 개최 -

-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존 마이클 코스털리츠 교수 및 조명균 통일부장관 특강 등 진행 -

세계적인 석학, 광운을 찾다

지난 2018년 1월 18일(목)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에서는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장용순)의 제112회 동계직무연수가 열렸다. 이 날 행사는 「“우리 모두의 아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는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주제로 여러 명의 연사를 통한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 날 초청된 인사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하여 유지상 광운대 총장, 럭스로보 오상훈 대표, 2016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존 마이클 코스털리츠 교수, 前 부산외대 김문길 교수 등이다.



① 조명균 통일부 장관 ② 유지상 광운대 총장 ③ 前 부산외대 김문길 교수 ④ 럭스로보 오상훈 대표

광운대 유지상 총장은 흰영사에서 “교육 혁신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를 양성해내기 위해 광운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우리의 교육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새로운 기회는 무엇인지 고민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응집물질물리학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수상자 존 마이클 코스털리츠 교수는 인간과 AI의 공존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존 마이클 코스털리츠 교수는 특강에서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며, 어렸을 때부터 못하는 과목은 많았지만 수학, 물리학 등 좋아하는 과목에 집중하다보니 어느덧 노벨상 수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며 그 과정 중 겪었던 실패와 좌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광운대학교 로봇학부 및 로봇게임단 로빛 출신으로 ‘로봇 천재’로 알려진 럭스로보 오상훈 대표는 특강에서 럭스로보가 세계적인 로봇기업으로 주목받게 되기까지의 많은 실패담을 이야기하며 “앞으로 럭스로보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로봇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모듈 개발 및 프로그램 지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운대 유지상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대학 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함께, 광운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7개의 단과대학에 대한 소개 및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특성화 전략 등을 소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국 중·고등학교 교장 및 장학관 약 1,000명이 참석했으며 본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당신을 넓다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수학과
김태균
교수

“전공공부를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2017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선정된 수학과 김태균 교수는 학생들에게 전하는 말이다. 지난 11년간 등록된 13만 건 이상의 논문을 평가해 각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을 저술한 학자로서, 전 세계 상위 1% 속한 김교수는 자신 또한 수학이라는 학문을 즐기고 있다면서 말이다.



즐기면서 하라! 결과는 따라 올 것이다!

자신의 삶과 같은 논문, 세계에서 인정하다

30여년 전 일본 규슈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태균 교수는 1994년부터 ‘장전 수학회’라는 학회를 만들어 당시 젊은 수학자들과 정수론을 연구했다. 그리고 2008년 광운대학교에 부임하면서 이 학회를 더욱 알차게 운영하게 되었다. “광운대 교수로 부임 후 두 가지의 세계적인 논문지를 발행하는 학회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논문지명은 ‘Proceeding of Jangjeon Mathematical Society’와 ‘Advanced Studies in Contemporary Mathematics’인데요. 이 두 논문지는 이제 저의 삶과 같습니다.”

학문으로서의 수학에서 놀이로서의 수학을 말하다

김 교수에게 수학은 어떠한 학문일까? 그는 먼저 학문으로서의 수학에 대해 말했다. “자연과 인간 세계의 규칙성을 엄밀한 논리와 수체계를 통하여 이해하기 위해 인간이 창의적으로 세운 고유한 사고 시스템, 학문으로서의 수학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개인적으로의 수학은 다르다고 강조한다. “제게 있어 수학은 놀이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화가 많은 제게 수학은 심리적인 안정을 줍니다. 어떤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풀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은 제게 더할 나위 없이 재미있는 친구같은 존재이지요.”

특히 이러한 마인드는 연구와 공부를 하는 대학원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라고 한다. “많은 대학원생들은 연구와 논문 쓰는 것을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연구 논문은 그날의 연구 과정과 결과를 적어 나가는 일기 같은 것이라고 교육합니다. 하기 싫은 ‘일’로서의 논문과 편한 마음으로 쓰는 ‘일기’로서의 논문,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더 이해가 되고 인정을 받을까요?”

참고 견더라! 그리고 자신의 전공을 즐겨라!

또한 김 교수는 학부 학생들에게도 지식을 이해하고 배울 때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고 당부하였다. “학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참고 견더라! 그리고 즐겨라’라는 것입니다. ‘10년 혹은 20년 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정이 되면 자기 사업하듯이 그 일을 즐겨라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훗날 스스로 뒤돌아봤을 때 장하다고 할 수 있도록 좋겠다면서 말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광운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공부를 취미생활 하듯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즐기는 자’에게는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겠지만 그 또한 즐김으로써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닦다

제23대 광운대
총동문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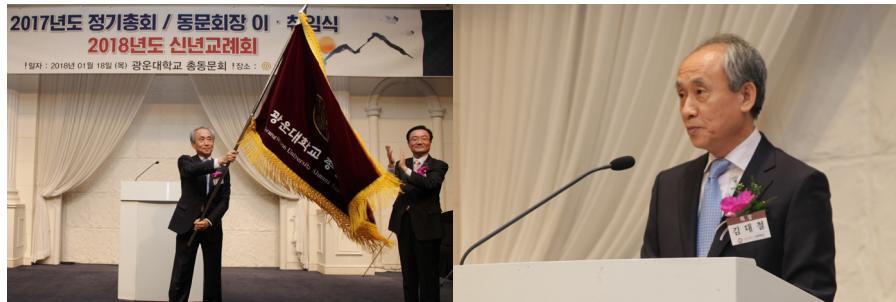
김 대 철 총 동 문 회 장

지금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광운대학교에 또 한명의 리더가 탄생하였다. 바로 6만여 광운 동문을 하나로 엮어 이끌어 나갈 총동문회장이 선출된 것이다.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두런두런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대철 동문(전자공학 75, 이하 김대철 회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에 김대철 동문을 만나 제23대 광운대학교 총동문회장으로서의 그의 바람과 각오를 들어 보았다.

주요경력

1979 : 육군소위임관(ROTC 17기)
1981~1985 : 대림산업 입사 및 사원
1985~1992 : LG하나ويل 특수영업과 과장
1993~2000 : 동진기술 대표
2001~2017 : (주)아이정보기술 CEO
2017~ : 사회적협동조합 두련두련 이사장, (주)아이정보기술 회장



중책을 맡은 만큼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지난 1월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김대철 회장의 모교 출입은 전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 인터뷰 당일도 18학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마치고 난 뒤였다. 먼저 그에게 축하인사를 건네자 그는 축하받을 일은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다. “총동문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전임 회장님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총동문회로 만들겠습니다

전임 회장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김대철 회장은 앞으로의 총동문회 운영도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을 이어가겠다고 하였다.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해 오신 일들을 보다 계승·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급격한 사업의 변화보다 현재의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그는 동문회의 재정을 건실하게 만들어 가는 초점을 맞춰 나가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동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총동문회에 앞서 먼저 다가가는 총동문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였다. “모교 발전을 위해 동문 분들의 관심과 참여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기보다 저희 총동문회가 동문들에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라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을 이어갔다.

“[오프라인](#)으로는 ‘동문기업인 모임’을 정례화하여 동문들이 서로 도움을 주거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온라인 상으로도 이를 통한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운과 광운인의 현재가 꿈꿔온 현실이 되기를

75학번인 김대철 회장은 졸업 후에도 광운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온 광운의 산증인이다. 그래서 현재의 모교의 발전이 더욱 더 감회가 새롭게 다가온다고 한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학교가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 안정이 되어 지금부터는 우리의 상징인 비마상처럼 재도약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새롭게 부임하신 신임 총장님께서 잘 이끌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후배들에게도 ‘광운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앞으로 정진해 나가기를 바랐다. “사실 어느 시기나 힘들지 않았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현재의 나만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 자신의 전공을 즐기면서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 과거도, 다가올 미래도 아닌 지금을 충실히 사십시오. ‘현재’에 충실하다면 여러분이 바라는 꿈도 결국 ‘현실’이 될 것입니다.”

봉사는 또 다른 광운사랑을 실천하는 길

- 우간다 캄팔라 세인트 폰시아노 카풀라 초등학교 새 교실 짓기 프로젝트 -



본교 미디어영상학부 기정은 학생이 참여한 대학연합 하비부 팀이 우간다 초등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실을 지어주었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우간다 세인트 폰시아노 카뮬라 초등학교 교실 신축 및 노후건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봉사는 또 다른 광운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보여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직원 봉사동아리 ‘광운사랑’의 후원으로 진행

이번 봉사의 주인공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월드프렌즈 4기 청년중기봉사단 우간다 캄팔라 A 하비부팀으로 기정은 학생은 연세대, 한양대, 동아대 학생들과 한 팀을 이뤄, 우간다 초등학생들에게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선물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비는 각 대학의 후원을 통해 마련되었다. 광운대의 경우, 기정은 학생의 프로젝트 제안서를 관심 있게 본 직원 봉사동아리 ‘광운사랑(회장 김성룡)’의 후원으로 진행했으며, 대학사회봉사협의회(KUCSS)의 후원이 추가로 이루어졌다.

우간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실을 선물하다!

기정은 학생이 봉사를 떠난 아프리카 우간다의 캄팔라 세인트 폰시아노 카뮬라 초등학교는 교실 부족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급식실의 조리 공간을 교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몇몇 교실에는 전기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벽 마감이 부서지고 못이 튀어나와 있는 등 아이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우려가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2달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교실 1개가 추가 신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내년에 증가할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협소하여 교실로 활용하기 어려운 공간을 정리하여 교사들의 휴게실을 갖추게 되었다.

기정은 학생은 “학생들의 노력과 학교의 후원 등으로 완성된 프로젝트라 더욱 뜻깊다”며 “살아온 환경도 학교도 전공도 모두 다른 학생들이 짊어짐이란 이름으로 봉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팀이 되어 아프리카 낯선 곳에서 아이들의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노력한 성과가 나타나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월드프렌즈 청년중기봉사단은

월드프렌즈 청년중기봉사단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해외봉사를 위해 구성한 대학생 봉사단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세계시민사회에 공헌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본인이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나눔의 정신을 배우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접 우리 대학을 소개한다면

광운대학교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광운대학교의 최대 장점은 학문을 취미 생활처럼 창의적으로 활기차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배움에 있어서 겸손한 자세' '꿈을 이루는 인내'를 가진 광운대학교 학생들이 대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미래를 키워나가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대학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과 김태균 교수



우리 동문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멋지게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자분야 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는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 중소기업 분야에서 많은 동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타 대학에서 볼 수 없는 동문 간의 끈끈한 결속력 또한 우리 대학이 가진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철 총동문회장(전자공학 75)



일단 가장 좋은 점은 학교가 예뻐졌다는 점이에요! 축제 때 다른 학교 친구들이 우리 캠퍼스를 보고 다들 멋지다고 해요. 특히 바람개비가 있는 곳은 핫한 포토존이 되었습니다. 도서관도 너무 편리하고 예뻐져서 괜히 공부가 잘되는 느낌입니다.

고현아(동북아통상 14)



대기업 엔지니어, 엔지니어 출신 CEO 등 공대 출신 선배님들과 나눈 대화와 선배님들께 받은 조언들이 창업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광운대학교 출신의 훌륭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공학교육혁신센터, 창업교육센터, 산학협력단 등 여러 부서에서 공간지원, 자금지원, 멘토링 지원, 투자자 연결 등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이 우리 대학의 자랑이자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일환(컴퓨터소프트웨어 10)



광운스퀘어 및 80주년 기념관이 생기면서 학교도 예뻐지고, 예전보다 학생들의 편의도 많이 챙겨주고 있어요. 공공기숙사(빛솔재)도 생겼으니 이제 멀리 사는 학생들도 부담감이 줄어 들었고요. 또한 이를 통해 주변 상권들도 발전해나가고 있으니 광운대학교에 오시면 남부럽지 않은 대학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선빈(로봇 14)



지역과 대학의 융합을 통한 미래의 창업친화도시를 만나고
자신의 진로를 광운과 함께하고픈 미래의 광운인도 만납니다.
문화예술이 끊임없이 청춘과 공감하는 캠퍼스의 모습과 함께
연구중심대학으로서 대학 본연의 모습도 담아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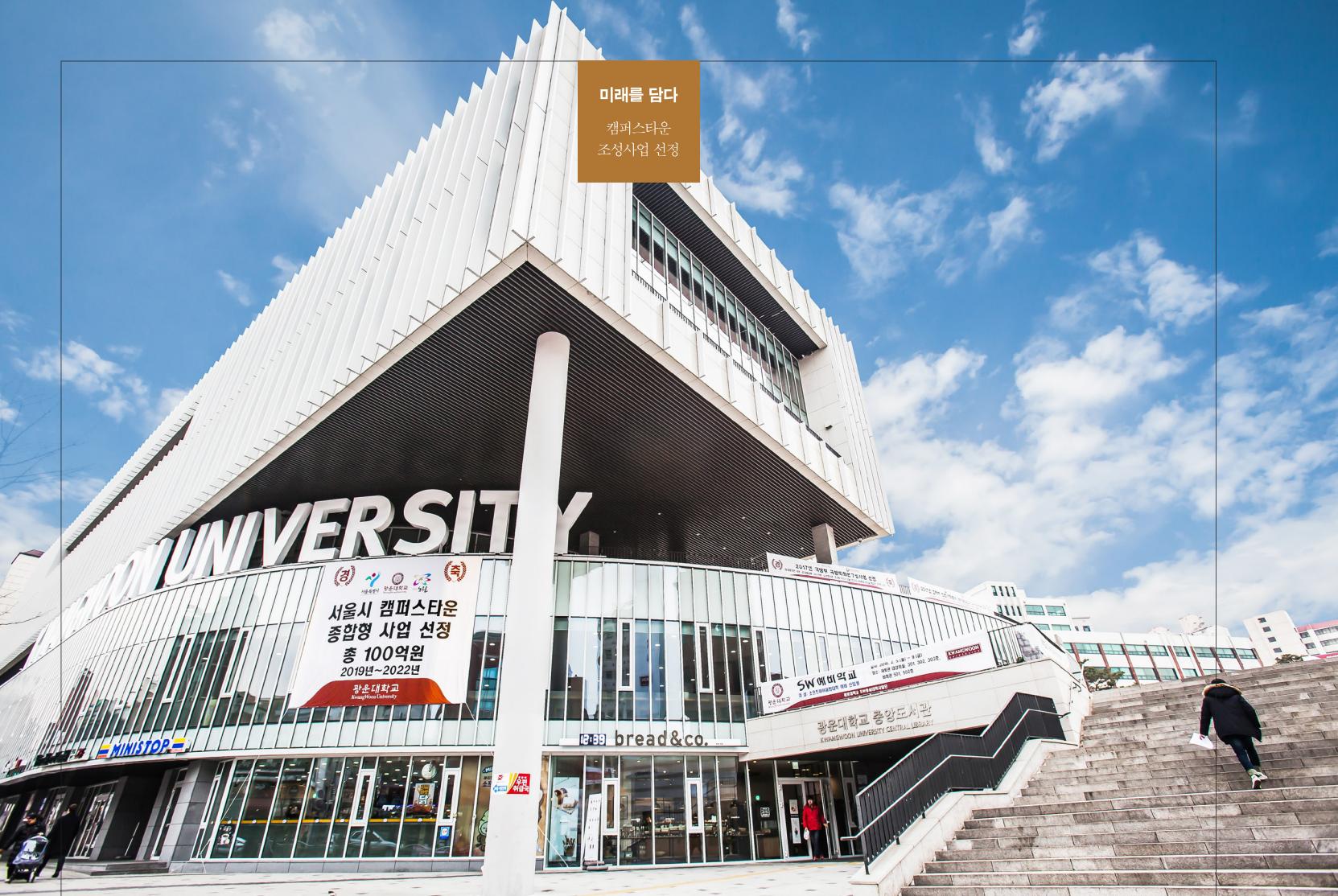
광운을 담다!

이곳은 캠퍼스의 미래,
청춘의 미래 그리고 지식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광운을 담다

미래를 담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선정



- 총 100억원 규모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선정 -

지역과 대학이 만나 '창업친화도시'를 조성하다!

광운대학교가 서울시가 진행하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에 선정됐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서울시가 대학과 공공기관, 지역산업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대학가를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대학·지역경제의 상생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한 서울 동북권 균형발전의 新성장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4년간 최대 100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 거점사업

서울시의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은 대학과 자치구가 계획수립부터 시행까지 주체로 적극 참여하고, 시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한 곳 당 4년간 최대 100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지역이 자체적으로 지속가능성을 갖추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마련, 커뮤니티 조성 등 마중물 성격의 사업에 집중 투자된다.

아울러 대학과 지역의 역량 강화, 대학의 지원을 활용한 지역 재생, 창업육성, 문화 특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캠퍼스타운 거점센터 조성 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업이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선정된 사업은 내년에 캠퍼스타운 실행계획수립을 통해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실행방안을 구체화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본 사업에는 총 13개 대학이 참여했으며 2단계 평가를 거쳐 우리 대학을 비롯해 중앙대, 세종대 총 3개 대학이 최종 선정되었다.



지역자산과 대학자산의 융합을 통한 ‘창업친화도시’ 조성

광운대는 노원구 월계동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인 「지역자산과 대학자산의 융합을 통한 ‘창업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이는 광운대의 창업 친화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학·지역주민의 활발한 창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구축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부족과 주거 불안정, 지역의 상권 침체 및 대학가의 고유한 청년문화 쇠퇴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대학의 우수한 자원과 공공기관의 지원, 지역 기업과의 상생협력 등을 통해 창업육성을 핵심으로 주거 안정화, 상권 활성화 등을 구현하여 침체된 대학가에 청년이 머무르고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NK-Community Clinic Center, 캠퍼스타운 컨트롤타워

광운대는 이를 위해 창업 주치의 시스템형 지원센터와 타운매니지먼트 컨트롤타워를 결합한 ‘SNK-Community Clinic Center’를 조성하여 청년창업지원에 대해 캠퍼스타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사업 실현을 위한 실무 교육 프로그램 및 아이디어 구현 지원, 심화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노원구와의 공공부문 협력은 물론, 언더독스(창업교육), 인사 이터스(BM개발 컨설팅) 및 한국도시설계학회, 도시정책학회 등과의 민간부문 협업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로를 담다

진로박람회 개최

Dream High!

더 높은 곳을 향해 네 꿈을 펼쳐라!

-드림하이 자유학기제 진로박람회 개최 현장-



광운대학교는 지난 2017년 12월 1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6개 대학(강남대, 경기대,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한국항공대) 공동으로 2017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가지원 공동사업 '드림하이 자유학기제 진로박람회'를 개최했다. 800여 명의 중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지하게 자신의 진로를 체험해 본 그 현장을 지금 소개한다.



미래의 진로를 미리 만나보는 체험 행사

이번 행사는 대학들이 직접 참여하여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중심의 행사로 기획되었다. 1일(금) 개최된 박람회에는 서울지역 및 경기 농어촌 지역 중학생 800여 명이 참가했다. 각 대학은 총 19개의 학과체험 프로그램 부스를 운영했으며, 학생 1인당 2개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ICT 특성화 대학의 강점을 살린 프로그램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 특성화 대학인 광운대학교는 로봇학부 및 미디어콘텐츠센터와 함께 3개의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로봇학부에서는 ‘로봇을 만들어보자’ 프로그램을 통해 로봇을 직접 만들어보고 동작시킴으로써, 로봇의 구조와 동작원리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미디어콘텐츠센터에서는 ‘뉴미디어 VR체험’과 ‘기자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뉴미디어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체험’은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과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의 차이와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의 원리 등 이론적 설명과 더불어 직접 만들어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현장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기자 체험’은 가장 먼저 사건사고를 접하여 대중에게 전하는 기자라는 직무와 기사 작성법 등을 알아보고, 2인 1조로 직접 방송용 카메라를 활용해 촬영 및 리포팅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5년 연속 선정

이번 자유학기제 체험 프로그램은 진로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진로탐색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ICT 특성화 대학인 광운대는 앞으로도 로봇을 비롯한 다양한 전공분야의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한편, 광운대는 교육부가 선정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2012년부터 5년 연속 선정되고 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 전형을 고교교육 중심으로 개선하여 수험생들의 대입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중·고교 학생의 진학지도 및 진로계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연관된 추가지원 공동사업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간 성과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광운대 외 5개 대학은 자유학기제 지원 공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번에 드림하이 자유학기제 진로박람회를 개최했다.

문화를 담다
중앙도서관
문화예술 주간 행사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문화예술 주간행사 개최-

문화의 물결을 따라

본교 중앙도서관은 2017년 10월 23일(월)부터 31일(화)까지 총 9일간 '2017 중앙도서관 문화예술 주간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새로이 신축된 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되어 광운대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까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행사로 큰 호응을 받았다. 앞으로도 광운은 대학과 지역이 하나가 되고 캠퍼스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낭만을 전하다



프로에서 아마추어까지, 문화의 경계를 허물다

이번 문화행사의 주요 스케줄은 광운대 학생 사진동아리인 아마사진반(KAPA)이 촬영한 광운대 캠퍼스 사진전이 있었으며, 학생 오케스트라 동아리인 Da KAPO의 연주회, 이병률 작가 초청 북콘서트, 독서 골든벨 및 영화상영회 등이 열렸다.

특히, 지난 10월 24일(화) 오후 6시 광운대 80주년기념관 내 대강의실에서 진행된 이병률 작가의 북 콘서트에는 약 200명의 학생들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끌림’,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등을 집필한 이병률 작가는 ‘글 쓰는 습관이 우리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를 주제로, 본인의 철학과 경험을 통해 학생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큰 호응을 받았다.

계절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던 음악의 향연

또한 10월 26일(목) 오후 6시에 도서관 멀티미디어파크에서 열린 오케스트라 공연 ‘작은 음악회’는 인제니움학부대학 조선낭 교수의 지도로 광운대 오케스트라 동아리인 Da KAPO의 연주가 가을밤을 수놓았다. Da KAPO는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을 비롯하여 익숙한 멜로디의 미스사이공 OST와 레미제라블 OST를 연주해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공연이 열린 도서관 멀티미디어파크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캠퍼스 인근의 상인들 및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이 눈에 많이 떨 정도로 지역과 어울린 문화행사로 진행되었다.



광운인과 지역민이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의 완성

광운대 중앙도서관장 이향철 교수는 “이번 행사는 중앙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교내 구성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운대 중앙도서관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 등을 키워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동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2017년 3월 신축된 광운대 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되었다. 80주년기념관 내 2개 층(I층, 1층)에 구축된 중앙도서관은 약 1만 172m²(3,082평)의 면적에 자료실, 열람실, 그룹 스터디룸, 멀티미디어존, 휴게공간 등 1,500여 석의 좌석 및 70여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16일(목)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 SK플래닛 11번가와 함께 대학생의 의식주를 지원하는 ‘청년일일케어’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이 날 행사는 청년들의 면접 스타일링을 위한 멘토링 ‘청년일일코디’, 식권판매 및 장학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일식탁’ 등으로 꾸며졌다.

청춘과 공감하며 청춘을 응원합니다

- 11번가와 함께하는 ‘청년일일케어’ 개최 -



청년일일식탁은 4,000원 상당의 학생식당 식권을 1,000원에 판매하고 판매금액 전부와 11번가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해당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환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일일코디는 취업 면접을 앞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메이크업·헤어스타일링, 사진촬영, 면접용 구두증정 및 취업전문 컨설턴트의 자소서 첨삭 등을 제공해준다.

지난 16일 학내에서 진행된 청년일일식탁, 청년일일코디 행사에서는 800장의 식권이 3시간 만에 완판됐고, 130명의 학생들이 면접 스타일링부터 자소서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식권판매를 통해 모은 금액 전액에 11번가의 지원을 더해 총 400만원의 장학금을 우리 대학에 전달했다.

김지현 SK플래닛 11번가 CSR 마케팅 담당자는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의 고민을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힘을 보탤 수 있어서 뿌듯했다”며, “장기 불황, 취업난 속에 지쳐가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 응원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희동 취업지원팀장은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큰 행사로 진행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취업지원팀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교 방위사업연구소(소장 : 심상렬,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교수)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2017년도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선진 국방 및 방위사업 혁신을 위한 융·복합 연구'로 교육부로부터 향후 6년간 총 15.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된다.

국방·방위사업의 핵심 전문인력 양성

- 방위사업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선정 -

이번 사업선정을 통해 방위사업연구소는 국방정책 및 전략수립, 국방획득 및 방산수출, 국방경영 분석 등 3개 분야에 걸쳐 경영학, 무역학, 행정학 등의 다양한 학문적 이론을 기반으로 국방혁신을 위한 융복합화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광운대 경영, 경제·무역, 행정학 교수진의 학문적 역량과 군 예비역들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국방·방위사업에 관한 연구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방위사업연구소 심상렬 소장은 "국방 및 방위사업 분야는 군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 학문적 연구가 제한되어 왔던 분야"라며, "방위사업연구소가 국방혁신 및 선진화를 위해 학문적

이론에 근거한 양질의 연구결과를 창출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본 등 선진 국방 연구소와 공동연구, 공동 학술활동을 추진하여 국방 및 방위사업 분야의 선진화 및 효율화에 이바지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는 2009년 국내 최초로 대학에 설립된 국방 및 방위사업 분야 전문 연구소로 2015년부터 대학 중점연구소로 지정되었다. 방위사업 분야에 경영, 경제, 행정학 교수진의 학문적 역량과 군 예비역들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방위사업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현재까지 국방 및 방위사업 분야의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다.

광운대, LITHOZ와 의료용 3D 프린터 원천기술 확보 도전



광운대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센터장 김영주)는 지난 2017년 8월 31일(목) 서울성모병원 본관 6층 회의실에서 글로벌 3D 프린터 전문기업인 오스트리아의 LITHOZ와 차세대 의료용 3D 프린터 기술개발 및 소재개발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실제 3D 프린팅 시장에서는 84%의 수요자가 금속이나 세라믹 등의 소재 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LITHOZ는 프링스의 FCP와 더불어 관련 시스템 개발 기술을 보유한 업체 중 하나다. 이 협력관계가 잘 마무리된다면 우리나라로 3D 프린팅을 위한 소재 개발로 글로벌 원천기술 확보에 성공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체에 삽입하거나 보조하는 대체 소재 개발은 의료산업계에서 의료용 임플란트와 골조직, 골충전재로서 높은 시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3D 프린팅 시장에서도 높은 기술적 가치를 가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프린터 역시 처음엔 고가의 하드웨어를 판매하다 기술이 보편화된 이후부터는 특허에 묶여 있는 카트리지나 토너 판매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3D 프린터의 경우에도 비슷한 전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이번 소재개발 협력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총동문회, 육군 중장 고현수 동문 초청 특강 개최



광운대학교 총동문회는 2017년 9월 26일(화) 오후 3시 본교 8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2017 선배와의 만남'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현 1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중장인 고현수 동문(산업경영 78)을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했다.

고현수 동문은 '감 떠려가기'를 주제로 대학생들이 가져야 할 열정과 노력에 대한 부분을 본인의 경험에 빗대어 설명했다. 특히, 강의 중에 군 생활 중 있었던 소소하지만 감동적인 에피소드들이 소개되어 참가한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고현수 동문은 "꿈을 이루는데 있어 이성도 물론 중요 하지만, 따뜻한 감성이야 말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펼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강의를 마쳤다. 한편, 이날 행사는 총동문회 2017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총동문회에서는 연간 2회에 걸쳐 총 16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광운대-양주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 양해각서 체결



우리 대학과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2017년 10월 11일(수) 양주시청 제2상황실에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기북부테크노밸리의 양주시 유치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북부테크노밸리의 양주시 유치를 통해 양 기관이 각자의 분야에서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래 복합형 자족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양주시 유치를 위한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광운대학교는 취업·창업교육 및 산학협력,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양주시는 광운대학교의 산학 협력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인적자원개발센터, 요리앱 '만개의 레시피'와 MOU 체결



광운대 인적자원개발센터(센터장 오문석 교수)는 지난 2017년 10월 18일(수) 국내 최대 동영상 요리 앱 '만개의 레시피'와 1인 미디어 분야 인재 교육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에는 광운대가 운영중인 1인 미디어와 온라인 동영상(OTT), 가상현실(VR) 주요 교육 분야에 제작 전문 인력 지원 등의 계획이 담겼다.

인적자원센터는 4차 산업혁명과 '1인 미디어' 시대에 대응해 지난 해부터 OTT 전공 교수진 및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제작자, 빅데이터 전문가 등이 강사진으로 참여하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창작을 준비중인 학생들은 물론 방송연기자, 패션모델 등 문화 콘텐츠 분야 일선 자직자들을 대상으로 다수 교육을 진행해왔다.

오문석 인적자원센터장은 "센터의 교육 과정을 통해 음악, 뷰티, 여행 등 다양한 분야 크리에이터들이 배출되었다. 이번 MOU로 인기 분야인 푸드 콘텐츠에도 교육의 전문성을 갖추어 광운대가 경쟁력 있는 1인 미디어 우수 창작자들의 요람으로 그 역할을 지속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만개의 레시피는 약 9만 3000여개 레시피를 종류, 싱그러움, 재료, 방법별로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마트, CJ제일제당, 농심 등 주요 기업과 건강식문화를 위한 다양한 콜라보 사업을 전개 중이다. 현재 550만 회원과 레시피 제작자 1806명, 동영상 레시피를 포함해 매달 2000개씩 새 요리를 발굴하는 국내 최대 요리 앱이다.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산·학·연 서울지역협회 우수과제전시회 개최



본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센터장(전자공학과 박재영 교수)이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산학연 서울지역 협회는 지난 2017년 11월 10일(금) 오후 3시 시민청 버스락홀에서 서울지역대학 및 연구기관의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관계자 200여 명을 초청하여 '2017년 산학연 서울지역협회 우수과제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본교 신재호 교수(화학과)가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 신 교수는 2015년과 2016년에 참여기업인 (주)이도바이오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과제명 : 기축 질병진단을 위한 다종 이온센서 카트리지 및 휴대형 측정기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수분 내 측정 가능한 기축 질병 진단용 일회성 다종 이온센서 카트리지 및 휴대형 측정기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기술 개발을 통한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로 국가의 기반 분석기술 확립 및 수입 대체를 통한 외화 절감 및 제품 수출에 따른 국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본교 박재영 교수(전자공학과)가 주관책임자로 수행한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주)솔 이종목 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인제니움학부대학, 송영길 국회의원 초청 강연회 개최



본교 인제니움학부대학(학장 노진서)은 지난 2017년 11월 16일(목) 낮 12시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청년취업과 북방경제'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는 ACE+대학생과의 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방경제 협력과 청년취업 문제의 관련성에 대해 강의했다. 송영길 의원은 인천광역시장 재직 시절 러시아의 중요 군사유물과 조선 고종 황제의 친서와 맞교환하는 문화재 외교로 북방 외교를 개척한 '러시아 통'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러시아 및 북방경제 개황'이라는 소주제를 통해 '러시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북방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익증진을 추구해야 한다'며 "경제 블루오션 개척으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북방경제 외교'"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정권 교수(인제니움학부대학)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러시아, 중국, 몽골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북방경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방사업을 통해 우리 광운대 학생들과 같은 청년들이 많이 취업해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 봉사단, 서울청소년지원 봉사대회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본교 사회봉사단(학생대표 : 화학공학과 3학년 문기환)이 지난 2017년 11월 18일(토) 서울특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제18회 서울청소년지원봉사대회' 시상식에서 서울특별시장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7년 제18회 서울청소년지원봉사대회'는 다양한 청소년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초·중·고·대학생 및 동아리, 유공지도자를 발굴하여 수상하는 서울특별시 최대 규모의 청소년봉사활동 포상 프로그램이다. 우리 대학 사회봉사단은 동아리 부문에서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장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사회봉사단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복지팀 심상민 과장은 "지난 2009년 12월 사회봉사단이 창단된 이후 본교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지역사회가 인정해 준 보람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회봉사단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몸소 실천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회봉사단은 연말을 맞아 노원구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12일(일)에는 상계동 지역의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연탄 4,500장을 전달했으며, 11월 19일(일)에는 상계동 지역의 저소득층 홀몸어르신 3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봉사를 펼쳤다.

광운대-㈜집토스 업무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지난 2017년 11월 20일(월) 화도관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중개서비스 청년스타트업인 ㈜집토스(대표 이재윤)와 청년 주거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집토스(ziptoss)는 거주지를 찾는 청년들에게 중개수수료 없이 온라인에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오프라인 중개서비스를 선보여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청년스타트업이다. 이번 MOU는 광운대학교와 ㈜집토스(ziptoss)가 힘을 합쳐 서울 동북권의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되었다.

㈜집토스 이재윤 대표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 집을 구하는데 있어 정보와 경험 등 모든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번 광운대학교와 협약을 통해 서울 동북권 청년들의 주거난을 해소하고, 학내 동아리 등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 창업에도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광운대가 추진하고 있는 캠퍼스타운(종합형) 사업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부족과 주거 불안정, 대학의 학생 수 감소와 재정 악화, 지역의 상권 침체, 대학가의 고유한 청년문화 쇠퇴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의 우수한 지원과 공공기관의 지원 및 지역과의 상생협력 등을 통해 창업육성을 핵심으로 주거 안정화, 상권 활성화 등을 구현하여 침체된 대학 가에 청년이 머무르고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총동문회, 자랑스러운 광운인상 수여



광운대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2018년 1월 18일(목) 오후 6시 호텔프리미에서 정기총회(총동문회장 이·취임식) 및 2018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광운대를 빛낸 엄정근(주하이스틸 대표이사(전자공학 70학번)와 최병화(경영학 82학번)에게 '자랑스러운 광운인상'을 수여했다.

엄정근 동문은 ㈜하이스틸의 대표이사로 한국철강협회 강관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철강 제품 및 강관, 튜브 등 혁신적인 제품을 세계 30여 개국에 수출하고 관련 산업 분야에서 혁혁한 성과를 이루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모교의 위상 제고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되었다.

최병화 동문은 신한은행에 입사한 이후, 탁월한 업무 추진으로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2015년도 대통령 산업포장 수상 등의 업적을 이루었으며 특히, 올해 금융계 처음으로 대기업 그룹장·기업그룹 부행장으로 영전하여 광운인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자랑스러운 광운인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오승인 감독 지휘한 한국팀, 2017 아시아대학축구대회 준우승 달성



오승인 광운대 감독이 이끄는 한국 A팀이 2017 아시아대학축구대회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A팀은 지난 2017년 9월 27일(수) 오후 2시 태백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일본 선발 B팀과의 결승전에서 2:3으로 패했다. 전반 4분 우에다 아이세에게 선제 실점을 허용한 한국 A팀은 후반 26분 이창훈의 페널티킥 골로 동점을 만들었다. 일본 B팀은 후반 30분 기타 료마의 득점으로 다시 앞서갔으나 후반 33분 광운대 김동현이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경기의 균형을 맞췄다. 그러나 경기 종료 직전 터진 우에다의 결승골로 일본 B팀이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일본 B팀의 이토 아츠키가 대회 MVP로 선정되었고 7골을 기록한 우에다 아이세가 득점왕을 차지했다. 우리 학교 소속 김동현은 이번 대회에서 5경기에 출전해 1골 1도움을 올리며 알토란같은 활약을 선보였다. 한편 결승전에 앞서 진행된 3, 4위전에서는 태국이 한국 B팀을 2-0으로 물리치며 3위를 차지했다.

이원호 교수,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본교 이원호 교수(건축공학과)가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위촉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년간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어망으로 인해 1980년대 초반에 범국민적 통일기구로 설립되었다. 다변화하는 주변국의 정세에 단력적으로 대응하며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초당적·범국민적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자문위원들은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 강화, 인도적 지원증가, 금강산 육로관광 착수,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급격한 남북 간의 상황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탄력적이고 내실 있는 자문 건의에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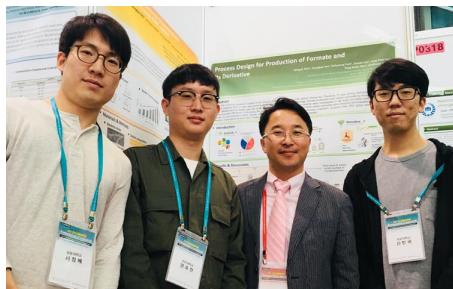
권순철 교수, 제18회 중소기업기술혁신 대전 대통령 표창 수상



본교 권순철 교수(광운한림원)는 2017년 9월 14일(목)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8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주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한국산학연협회 외)에서 그간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 기술혁신 산학연 유공자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권순철 교수는 VR/AR, 홀로그램 콘텐츠 및 실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다수의 산학협력 R&D에 과제책임자로 참여하였고, 산업체 자교육, 중소기업 기술지도 등 활발한 산학협력활동을 수행하였다. 특히, 2014년도에 수행한 참여기업 (주)4real(과제명 : 사용자 취향 맞춤형 기정용 시뮬레이터 시스템 개발)과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성공최우수등급(A등급) 선정 및 개발기술의 제품화 및 사업화 성공으로 해외 수출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본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박철환 교수 연구팀, 한국생물 공학회 우수논문 발표상 수상



본교 화학공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신민국 학생(지도 교수 박철환)은 지난 2017년 10월 11일(수)부터 13 일(금)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7 KSBB Fall Meeting and International Symposium'에서 '학생 우수 논문 발표상'을 수상했다. BT 전문가 7,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생물공학회의 주최로 열린 본 행사에서 신민국 학생은 424 편의 포스터 중 12편을 선정하는 포스터 발표 부문에서 '학생 우수 논문 발표상'을 수상했다.

연구주제는 'Process design and economic evaluation of biological formate production'로 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인 일산화탄소를 기질로 고부가가치 화합물을 생산하는 생물공정을 설계하였으며, 특히, 공정의 민감성 분석 및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부분에서 창의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본 결과를 통하여 기존 촉매를 이용한 고온반응, 복잡한 공정 등의 단점을 극복한 단순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바이오 기반의 공정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공정 스케일업 단계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는 특허출원과 국제논문 게재를 함께 준비 중에 있다.

중국인 관미이 학생, '2017 한국어 말하기 대회' 1등 수상



본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중국인 관미이 학생이 '2017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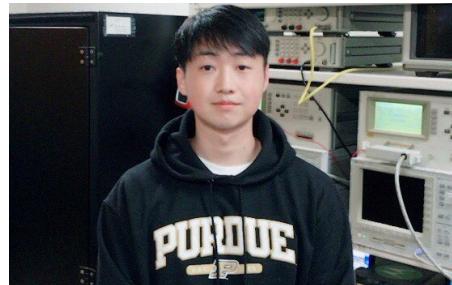
한글학회와 광운대학교가 후원한 '2017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지난 2017년 10월 14일(토) 서울 강남구 역삼1문화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이날 대회에서는 예선전을 통과한 10개 팀이 참가해 열띤 우리말 경합을 벌였으며 이 중 한글학회 회장상인 최우수상의 영예는 본교 중국인 유학생 관미이(국어국문 15)에게 돌아갔다. 관미이 학생은 '나와 우리'를 주제로 한국에서 일상 대화 속에 많이 쓰이는 '우리'라는 단어를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과 결부시켜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미이 학생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한국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한국어 공부에 매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부생 홍은기 학생, SCI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본교 전자재료공학과 홍은기(25) 학생의 논문이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인 'Microelectronics Reliability' 10월호에 최종 게재가 확정됐다. 논문 제목은 'Effect of



microwave annealing on SOI MOSFETs: Post-metal annealing with low thermal budget(SOI MOSFETs 소자에서의 마이크로웨이브 열처리 효과 : 낮은 에너지를 이용한 금속 열처리 기술)'로 초미세 반도체 소자가 직면한 공정기술 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초미세 반도체 소자의 안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 공정 기술과 다른 마이크로파 조사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저온에서 단시간의 열처리 공정으로도 반도체 소자에서의 불순물과 결함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반도체 소자의 특성 향상을 위해 고온으로만 실시된 열처리 기술을 저온에서도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을 인정받아 국제학술지 'Microelectronics Reliability' 10월호에 게재되었다.

박태원 교수 연구팀, 도시설계공모전 우수상 수상



본교 박태원 교수 연구팀(경영대학원 도시계획부동학과)은 지난 2017년 10월 18일(수) 국토교통부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관하는 제11회 도시의 날을 맞아 실시된 평택시 전국 도시설계학생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수상작품은 'Camp Happiness

: 팽성 특화주거단지 개발계획'으로 최근 신경제 성장과 국제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평택시의 외국인 특화주거단지설계 아이디어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지난 2017년 10월 13일(금) (사)도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도심형 아웃렛쇼핑몰 방문자의 소비행태분석'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상신 교수 연구실, 우수논문상 및 최다 논문 발표상 수상



본교 전자공학과 이상신 교수 연구실은 지난 2017년 11월 8일(수)부터 2박 3일 동안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개최된 '제26회 광자기술학술학회(Photonics Conference 2017)'에서 우수논문상 및 최다 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박사과정 고송 학생은 '메타표면을 이용한 광대역 및 고효율의 변칙 반사'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광소자 분야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어 상을 수상했다.

또한, 본 학술학회에서 이상신 교수가 이끄는 포토닉스 연구실(Photonics Research Lab.)은 나노광소자 및 광센서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여 '최다 논문발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상신 교수는 2002년 광운대학교에 부임한 이래 광통신용 소자, 나노광소자 및 광센서 등의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Nano Letters 및 Laser & Photonics Reviews 등을 포함한 해외 유수 SCI 저널에 약 120여 편을 게재하였다.

김형국 교수 · 조혜승 학생, 최우수 논문상 수상



본교 김형국 교수(전자융합공학과)가 지난 2017년 11월 9일(목)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2017년도 한국음향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올해 최고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고 연구업적이 현저한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연구주제는 '가상 콘서트홀 기반의 인터랙티브 음향 체험 인터페이스'로 인공 잔향 알고리즘과 멀티채널 음원 분리 기법의 간섭 제거 방식을 적용해 사용자에게 가상 콘서트홀 기반의 인터랙티브한 체험을 제공하였다. 본 인터페이스를 통해 향후 입체음향을 더욱 액티브하게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전파공학과 대학원생 조혜승 학생(지도교수 김형국)도 본 학회에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학생에 대해 수여하는 'Br'uel & Kjaer 학생논문상'을 수상했다. 연구주제는 '커널 모델과 장단기 기억 신경망을 결합한 보컬 및 비보컬 분리'로, 본 결과를 통하여 비보컬 구간에서 발생하는 음원의 오추정 문제를 개선하고 효과적인 보컬 및 비보컬 분리를 수행하여 객체 음원 기반의 입체음향 제공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회 2017 정기학술발표 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논문 제목은 '건물 외관조사에 활용 가능한 영상조사 기술 연구동향'(논문저자 : 임선영 학생, 유정호 교수)으로 향후 균열을 제외한 외관조사대상 검출을 위해 활용 가능한 영상처리 기술 연구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또한, 박재연 학생(건축공학과 12학번, 사진 오른쪽)은 지난 2017년 11월 18일(금) 서울시립대 21세기관에서 열린 건설관리학회 전국 대학생 학술대회 논문 부문에서 'MCNP 시뮬레이션을 통한 나노 TiO₂ 침가 시멘트 페이스트의 중성자 차폐 성능 평가'(논문저자 : 박재연, 배성철, 유정호)를 주제로 전국 대학생 71개 팀 중 대상(국토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시각장애인 김혜균 학생, KMAC 우수 논문상 수상

본교 산업심리학과 코칭심리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혜균 학생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가 주최한 '2017년 13회 경영혁신 연구논문 및 사례연구 대학(원)생 공모전'에서 3위인 우수상에 선정되어 상과 부상 200만원을 받았다.

논문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고용주 관점에서의 직원 팔로워십 융합모델 연구'로 소상공인 소기업 고용주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원채용 및 관리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되었으며, 실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법과 FGI를 수행하여 직원채용 및 고용유지 여부 판단에 필요한 핵심 소양

건축공학과 학생들, 우수논문상 연이은 수상 쾌거

본교 건축공학과 학생들이 우수한 논문으로 연이은 수상을 했다. 임선영 학생(건축공학과 13학번, 사진 오른쪽)은 지난 2017년 11월 17일(금) 한국건설관리

을 새로운 개념의 팔로워십으로 정의했다.

이 공모전에는 총 99팀 245명이 응시한 가운데 1차 논문심사와 2차 PT심사를 거쳐 선정 논문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상훈 교수, (사)한국융합학회 회장 선출



본교 인제니움학부대학 이상훈 교수가 지난 2017년 12월 8일(금) 2017년 한국융합학회 이사회 및 총회에서 제5대 회장에 선출되었다.

학술연구재단 등재지인 사단법인 한국융합학회는 융합 분야의 산·학·연 연계를 통한 융합 발전 모델을 수립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학회로서 융합 기술 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내외 컨소시엄이나 학술활동, 연구개발 등을 진행하여 실용적인 국가 융합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박재영 교수 연구팀, 고출력 에너지하베스팅 기술 개발 성공



본교 박재영 교수 연구팀(전자공학과)은 할바흐 자석 배열(Halbach magnet array), PTFE(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나노 구조 및 Aluminum 나노 잔디

(Nano-grass) 전극(음극, 양극)을 이용하여 인체동력 기반의 초소형 고출력 하이브리드(Electromagnetic, triboelectric) 에너지 수확소자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박재영 교수 연구팀은 할바흐 자석배열을 사용하여 고 출력을 냄과 동시에 전자기력 에너지 수확소자의 크기를 소형화하고, PTFE 나노 구조 및 Aluminum 나노 잔디 구조의 전극을 사용하여 마찰전기 에너지 수확소자의 전극 접촉면적을 넓힘으로써 고출력을 내는 초소형 하이브리드 에너지 수확소자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박재영 교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표창 수상

본교 박재영 교수(전자공학과)가 2017년 12월 12일(화) 서울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개최된 산학연 혁망플러스(주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한국산학연협회)에서 그 간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산학연협력전문가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표창'을 수상했다.

박재영 교수는 2015년도에 수행한 참여기업(주)LG(과제명: 스마트 헬스케어용 블루투스 기반 노동 측정 시스템 개발)과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일회용 진단키트에서 계속사용이 가능한 키트를 개발하여 사업화에 성공하였으며, 신규인력 고용창출 등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지훈 교수 연구팀, JCR Q1 Metal 저널 커버 논문 선정

본교 전자공학과 이지훈 교수 연구팀은 전자공학과 순다 박사과정 연구원(제1저자)과 함께 다양한 플라즈모닉 Au/Ag/Pd(Gold/Silver/Palladium, 금/은/팔

라듐) 나노 합금 구조물(alloy nanostructures)의 사파이어(AI2O3)기판상에서 열탈수 현상 성장 매개 변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표면 자유에너지 최소화의 조합 효과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금/은/팔라듐 나노 합금 구조물을 성장할 수 있는 '나노 합금 구조물 형질 보전 성장법'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본 연구를 통해 희토류 금속3-D 금/은/팔라듐 나노 합금 구조물의 사파이어 기판상에서 초기 성장단계 비밀을 밝혀내, 3-D 금/은/팔라듐 원자의 상호 및 표면 전이 과정을 규명하였으며, 나노 합금 구조물의 효율적인 성장 및 제어를 가능케 하여,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공학과 김하은 학생, 제18회 생명 공학경시대회 동상 수상



본교 화학공학과 4학년 김하은 학생은 한국화학공학회 생물화공부문위원회가 주최하고 (주)LG화학이 후원한 제18회 한국화학공학회 생명공학경시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지도교수는 박철환 교수이다.

지난 2017년 12월 22일 서울 마곡 Science Park LG 화학연구소에서 진행된 수상식에서 김하은 학생은 "수상의 영광을 화학공학과 교수님들께 돌리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멋진 여성공학자가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본 경시대회는 생물화공과 생명공학 관련 전공의 전국 대학생들이 응시하며, 김하은 학생은 본 경시대회에 분자생물학, 응용생물학, 효소공학, 배양 및 생물반응 공학 과목을 응시하였다.

더 광운과 함께 함께

발전기금
기부방법
안내

새로운 100년을 향한 의미 있는 동행, 네이밍(Naming) 캠페인

광운대학교는 80여 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넘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거교적 모금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광운대의 새로운 랜드마크, 광운스퀘어 및 80주년 기념관의 각종 시설과 인프라가 후원자 여러분의 이름으로 새겨집니다.

네이밍 예시



내 이름 남기기 후원

구분	기부 금액
의자	20만 원
책상	30만 원
4인용 테이블	200만 원
6인용 테이블	300만 원
서가	300만 원
그룹 스터디룸 : 4인, 6인, 8인, 10인	1,500만 원부터
세미나실 : 10인, 12인, 20인	3,500만 원부터
강의실 : 소(30석), 중(48석), 대(200석)	1억 원부터

기부 약정이 더 간소해졌습니다.

PC·모바일에서 <http://give.kw.ac.kr>에 접속하시면 손쉽게 기부 약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납부 방법이 다양하고 편리해졌습니다.

휴대폰 결제, 자동이체(CMS), 카드 결제, 급여공제(교직원), 무통장입금 등으로 다양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제 혜택

• 개인(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택
- 상속재산 기부 : 고인의 유언증여,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신 경우 상속세제 면제

• 법인(주식회사, 법인 단체)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발전기금 종류 및 기타 후원방법 안내

• 발전기금 종류

- 광운사랑 발전기금 : 광운의 발전을 위해 기금의 사용 용도를 학교에 위임하여 출연한 기금
- 지정 발전기금 :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건축·장학·연구·기타 등)

• 현물 기부 및 기타 후원방법

- 유형고정자산, 유가증권, 각종 법적 권리 등

후원문의

- 대외교류팀 : Tel 02-940-5014 Fax 02-940-5016 e-mail : kwlove@kw.ac.kr

Thanks

글로벌 ICT 명문대학으로 성장하는
광운의 위대한 여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10억 원 이상

하나은행

삼성전자

해동과학문화재단

1억 원 이상

오종택

구관영 동문 응용전자공학 69

김문찬

오경호 도원원구 대표이사

이웅주

국민은행 광운대지점

임용재 미디어솔루션 대표이사

엘지전자

이재령 동문 경영대학원 89)

대한축구협회

정용철 학부모 산업심리학과 정성훈

김영준 동문

인프라넷

광운대총동문회

신한은행 노원역지점

엄평용 동문 응용전자공학 77, 유진테크대표이사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GS스포츠

간송기술장학재단

강릉초당두부

강영현 동문 환경대학원 07

광운포럼 직원퇴직자모임

광주FC

국민은행

김대희 교수 화학공학과

김문석 동문 경영학과 88

김병호 교수 화학과

김인태 교수 화학과

김장곤 동문 무선통신공학과 64

김진오 교수 로봇학부

김해진 동문 전파공학과 94

나비코

남학현 석좌교수 화학과

도서출판 북스힐

도쿄FC

디지털컴

디지털국제공조

로봇게임단 로빛

류정범 동문 AMP 19대 회장

마이크로트랙

미래환경플랜

박언비 동문 생활체육학과 08

박종길 동문 산업경영학과 84

박종문 동문 응용전자공학 68

부천FC

블랙아크

산학협동재단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원우회

서울시축구협회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손광철 교수 정보콘텐츠학과

송관호 동문 대학원 동문회장

수원삼성불루윙즈축구단

신화빌딩

심상렬 교수 국제통상학부

아비스파 후쿠오카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엄정근 동문 전자공학과 70

여중섭

우리들교회

우리은행장위동지점

원종숙 동문 교육대학원 12

원철상 동문 국제통상학과 02

위드유편입

윤도영 교수 화학공학과

윤영자 동문 교육대학원 12

이대희 교수 행정학과

이랜드스포츠

이문희 동문 상담복지정책대학원 15

이반스포츠

이상우 명예교수 화학과

이상철 前총장

이상현 동문 건축공학과 89

이승현 교수 인제니어링학부대학

이현석

인천유나이티드

임옥순

전남드레곤즈

전영무 교수 화학과

전자공학과83학번동문회

전홍배 교수 화학과

정동훈 교수 미디어영상

조희준 동문 교육대학원 13

김호더래버터토리

진철평

차근식 명예교수 화학과

창암장학재단

채널진

최선윤 前동문회장 응용전자공학과 73

최용락 동문 화학과 89

축구부 학부모회

커미트

통일스포츠

트래비스주식회사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한태희 동문 화학과 94

함현미 동문 교육대학원 13

헬시바

혁신전공사

현대홈쇼핑

홍창표 동문 전자공학과 74

아이센스

윤종태

이병설 동문 전기공학과 75

이상록

이윤미 교수 화학과

임종태 동문 응용전자공학과 66

장박우 교수 화학과

장지훈

재직동문회

정달호 학부모 정보과학교육원 정진우

정석재 교수 경영학부

정지혜 동문 대학원 15

조형민 동문 전자계산기공학과 85

천장호 총장

최원기

케이제이아이

탁진국 교수 산업심리학과

태영건설

티앤씨프로

하정인터넷리

홍규화

KB국민은행 라스타비마점

임도영 동문 교육대학원 12

1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

BASF

GHT워

KT&G상상펀드기금운영위원회

가가와

강남이 동문 교육대학원 13

강미영

강우람 동문 산업심리학과 05

건원엔지니어링

계룡건설산업

고재욱 교수 화학공학과

공간증합건축사

곽인찬

광운분식

권배근

권태복 교수 법학부

권현영 교수 대학원

권혁준 동문 교육대학원 12

김경선
김남영 동문 전자공학과
김명순 동문 교육대학원 14
김민동 교수 법학부
김상률 교수 경영학부
김석우 동문 교육대학원 13
김성국 동문
김양래 교수 화학과
김용환 동문 제어계측공학과 92
김유곤 직원 중앙도서관
김은죽 동문 교육대학원 13
김주찬 교수 행정학과
김지연 동문 교육대학원 14
김진곤 교수 법학부
김태훈 직원 기획처
김형석 교수 전기공학과
남영건설
뉴바바
대림산업
대우건설
대홍코리아주식회사
도건우 동문 전자재료공학과 02
동부건설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사사무소
다엔제이
로보티즈
롯데건설
문상현 교수 미디어영상학부
박경애 교수 교육대학원
박상열 교수 법학부
박수원 교수 전자통신공학과
박수진 동문 교육대학원 13
박일우 교수 로봇학부
박재석 동문 전자내로공학과 85
박정우 동문 경영대학원 05
박종구 교수 행정학과
변대원
변유경 동문 교육대학원 11
부경희 교수 미디어영상학부
비앤컴컨설팅
삼성물산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아이스하키협회
송승호 교수 전기공학과
송시현 동문 교육대학원 13
수원FC
슈엔도로시
신민중 교수 법학부
신일제약
쌍용건설
아이스하키부동문회
아이스하키부학부모회
아큐멘경영연구소

안영옥산부인과
안창범 교수 전기공학과
애드런
에이엔유디자인
오세훈 직원 중앙도서관
오창남 학부모
와이엔하우컨설팅
우리은행 대구혁신도시금융센터
원양건축사사무소
월계대반점
유선봉 교수 법학부
유태호 동문 정보통신공학과 78
유희웅 동문 전자공학과 03
윤이숙 교수 국제협력학부
윤원식 동문 통신공학과 67
이기종합건축사사무소
이기서 명예교수 로봇학부
이도준 동문 응용전자공학 74
이상경 교수 법학부
이상균 동문 행정학과 84
이상신 교수 전자공학과
이선호 동문 행정학과 89
이수건설
이승택 동문 교육대학원 13
이영남 동문 화학과 80
이영래 동문 대학원 07
이옥진 교수 생활체육학과
이윤상 직원 대외국제처
이일재 교수 영어영문학과
이정훈 교수 전기공학과
이철호 동문 전자재료공학과 80
이춘원 교수 법학부
이충근
이태로
이하형 동문 대학원 02
이혁준 교수 컴퓨터정보공학부
이현 동문 대학원 02
이현웅 동문 경영대학원 12
이형근 교수 컴퓨터정보공학부
이혜영 교수 행정학과
이혜진 동문 전기공학과 07
임영균 교수 경영학부
장홍제 교수 화학과
전승협 동문 법학과 03
전자통신공학과 84학번 동기회
정립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정병태 동문 전자공학과 68
정승기 교수 전기공학과
정인준 동문 전자공학과 68
조재희 교수 경영학부
조진웅 동문 전자통신공학과 82
조현주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참사랑
채영준 동문 화학과 92
천성오 직원 ACE사업단
천지산업
최상목 동문 행정학과 84
최용훈 교수 로봇학부
최재혁
최해옥 동문 교육대학원 09
카라반캠프
탁정애 동문 화학과 90
토문엔지니어링
티웨이항공
파밀리마트
피에이씨
학지사
한국마사회
한국마이크로칩
한국번역가협회
한미파슨스
한빛종합건축사사무소
한신공영
한종희 교수 행정학과
한춘 명예교수
한화건설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핸디언즈
항림
허구철 동문 전자공학과 80
허돈 교수 전기공학과
현대건설
현대엠코
홍광의 동문 수학과 88
홍진웅 교수 전기공학과
회립종합건축사사무소
1백만 원 미만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강민철
강신저 동문 교육대학원 14
강인선 동문 교육대학원 06
강태경 동문
강황성
강효경 동문 교육대학원 06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 원우일동
고병렬 직원 인여교육원
고선아 동문 교육대학원 13
곽민희 동문 화학과 99
곽태형 동문 화학과 94
권기성 교수 행정학과
권기청 동문 물리학과 88
권미현 동문 화학과 05
권지숙 직원 총무처
권현숙 동문 교육대학원 14

김경채
김경호 학부모 생활체육학과 김현우
김고은 동문 교육대학원 14
김관일
김기윤 교수 경영학부
김나현 동문 교육대학원 13
김남선 동문 교육대학원 13
김대선 동문 교육대학원 08
김대호 동문 화학과 93
김도현 동문 국제협력학부 14
김동균 동문 환경공학과 91
김동선 동문 교육대학원 14
김동인 동문 교육대학원 14
김동인 직원 정보통신처
김래오 직원 생활관
김마리아 동문 교육대학원 14
김민기 동문 화학과 04
김민원 동문 교육대학원 11
김병목 동문 화학과 93
김복기 동문 전자공학과 81
김봉신 동문 교육대학원 13
김상훈 교수 경영학부
김석원
김석태 동문 전자공학과 76
김설영 동문 교육대학원 10
김성룡 직원 대외국제처
김성수 동문 전자통신공학과 84
김성호 교수
김성호 동문 화학과 01
김소영 동문 화학과 98
김수철 동문 통신공학과 77
김숙진 동문 교육대학원 14
김숙희 동문 교육대학원 13
김순일 동문 교육대학원 14
김승수 동문 교육대학원 04
김승진
김승춘 동문 대학원 08
김신한 동문 화학과 00
김애자 동문 교육대학원 13
김연영 동문 화학과 01
김영무 직원 정보과학교육원
김영부 동문 응용전자공학과 71
김영조 동문 스포츠지도자학과 01
김용문 직원 관리처
김우 동문 화학과 99
김율희 동문 대학원 12
김인기
김인숙
김임순 교수 환경대학원
김재미 동문 동북아통상학부 08
김정기 동문 화학과 94
김정숙 동문 교육대학원 12
김정주 동문 교육대학원 12

김종현 교수 전자융합공학과
김준엽 직원 기획처
김지숙 동문 화학과 99
김지찬
김진상 동문 행정학과 86
김창동 직원
김충혁 동문 전기공학과 78
김태구 동문 화학과 89
김학목 동문 화학과 97
김현
김혜정 동문 교육대학원 11
김효경 동문 산업경영학과 84
김홍빈 동문 대학원 12
김희교 교수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김희정 동문 경영학과 05
나극환 교수 전자공학과
나인표 동문 경영학과 86
남승우 직원 인제니어링학부대학
동해종합기술공사
문경 동문 교육대학원 13
문명희 동문 상담복지정책대학원 10
민상원 교수 전자통신공학과
민영섭 동문 행정학과 85
민일영
박범창 동문 화학과 88
박상준 동문 화학과 05
박석 교수 생활체육학과
박선하 직원 중앙도서관
박소연 동문 교육대학원 14
박용우 직원
박유진 동문 교육대학원 03
박찬만 동문 전기공학과 97
박찬업 동문 화학과 99
박철환 동문 화학공학과 93
박필예 동문 교육대학원 12
박하나 직원 산학협력단
박해진 동문 화학과 96
박현규 동문 전기공학과 86
박현자 동문 교육대학원 11
반상욱 직원 입학처
반윤구
배경호 동문 화학과 96
백주훈 교수 로봇학부
백향기 동문 교육대학원 11
서명희 동문 교육대학원 14
서상구 교수 경영학부
서승원 동문 화학과 88
서영경 동문 교육대학원 13
서영교 동문 전자공학과 14
서영호 동문 전자재료공학과 94
서울영어마을수유캠프
서정선 동문 교육대학원 14
서정훈 직원 기획처

성백순 동문 경영학과 06
소민광 직원 정보통신처
손기인 동문 화학과 96
손채봉 교수 전자통신공학과
손화수 직원 산학협력단
송경언
송영출 교수 경영학부
송은숙 동문 교육대학원 11
송의식
송형수 교수 수학과
신문철 직원 대외국제처
신유진 직원 경영대학원
신은정 동문 교육대학원 12
신재현
신정희 동문 교육대학원 13
심천보 동문 전기공학과 86
안길환 동문 화학과 99
양성현 교수 전자공학과
양창근 동문 건축공학과 91
예의수 직원 인문사회과학대학
오승인 직원 체육부
오준희 직원 정보통신처
오현주 동문 화학과 06
온정훈 동문 화학과 97
왕승찬 직원 중앙도서관
우동영
원정아 동문 교육대학원 14
유미애 학부모 컴퓨터공학부 김승모
유정호 교수 건축공학과 91
유지상 교수 전자공학과
유콘시스템
윤명선 동문 교육대학원 14
윤상호 동문 대학원 12
윤선영 동문 화학과 05
윤선희 동문 교육대학원 14
윤우진 동문 화학과 92
윤윤석 교수 경영학부
윤탁 동문 상담복지정책대학원 09
이강백 동문 전기공학과 82
이강성 교수 인제니어링학부대학
이건영 교수 전기공학과
이경철 동문 컴퓨터공학과 09
이근수 동문 화학과 05
이대의
이동석 직원
이동익 동문 정보제어공학과 03
이두병 동문 화학과 91
이미영 동문 교육대학원 13
이병현 교수 경영학부
이상종
이상혁 동문 제어계측공학과 92
이상훈 교수 인제니어링학부대학
이선정 동문 화학과 01

이성재
이승희 직원 총무처
이영숙 동문 교육대학원 10
이영희
이옥희 동문 교육대학원 13
이윤석 동문 화학과 92
이윤식 직원 총무처
이윤정 동문 교육대학원 14
이윤희 동문 교육대학원 14
이은주 동문 화학과 98
이재선 동문 화학과 93
이정준 동문 화학과 00
이종열 직원 SW중심대학
이종웅 교수 인제니어링학부대학
이종혁
이주형 동문 화학과 01
이지영 직원 비서실
이진경 직원 산학협력단
이창민 동문 화학과 95
이창석 동문 화학과 92
이창석 직원 학생복지처
이현명 직원
이현순 직원
이현승 동문 화학과 08
이혜정 동문 화학과 96
이홍 교수 경영학부
이화정 동문 교육대학원 11
이홍섭 동문 경영학과 98
임시혁 동문 경영학과 06
임의순 동문 교육대학원 13
임종대 직원
임중식 직원
임하순
임호선 직원 교무처
임화영 교수 로봇학부
장경순 직원 기획처
장동훈
장미화 동문 교육대학원 13
장의수 동문 교육대학원 04
전병호 동문 스포츠지도자학과 02
정경학 동문 전자계산학과 91
정기봉 동문 대학원 12
정문호 교수 로봇학부
정수미 동문 교육대학원 14
정승철 직원
정용준 동문 경영학과 83
정은진 직원 중앙도서관
정인숙 동문 교육대학원 11
정주원 동문 영어영문학과 02
정진우 직원 광운미디어콘텐츠센터
제기홍 동문 전기공학과 74
제일운행
조석호 직원 중앙도서관

조선영 직원 광운학원
조수열 직원 정보통신처
조애랑 동문 교육대학원 11
조인성 동문 교육대학원 14
조인숙 동문 화학과 97
조충현 직원 교수학습센터
주명희 동문 교육대학원 13
주문수 동문 화학과 88
진광희 동문 교육대학원 14
진정민 동문 교육대학원 14
최금주 직원 동해문화예술관
최동호 동문 전자통신공학과 16
최민희
최병광 직원 정보과학교육원
최복선 동문 교육대학원 10
최상두
최성수 동문 화학과 99
최승오 동문 교육대학원 14
최인찬 동문 전자계산기공학과 82
최재완 직원 대학원
최재준 직원
최재청 직원
최정순 동문 교육대학원 13
최정훈 직원 정보통신처
최종대 동문 화학과 89
최주엽 교수 전기공학과
최준혁 동문 교육대학원 15
최진철 동문 신문방송학과 95
최찬영 동문 컴퓨터공학부 99
최철순 교수 생활
최혜숙 동문 교육대학원 11
츄로바이커피
탁연복 학부모 경영학부 이승원
파란나라어린이집
평생다문화전공
한솔시스템
한해리 동문 화학과 05
한호숙 동문 교육대학원 14
함순정
허정 동문 신문방송학과 96
홍명현 직원
홍정숙
홍현표 동문 화학과 95
황대영
황문희 동문 교육대학원 11

2009년 3월 1일~2017년 10월 30일



산업심리학과 17학번 김민정

세상을 놀라게 할 *IT*⁺형 인재가 탄생합니다

혁신적인 IT 기술로 새로운 세상을 이끄는 인재를 넘어
공존의 지혜를 겸비한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광운의 생각!
전공 지식과 융합적인 사고, 글로벌 소통능력은 물론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공존·공감의 사고방식을 키우는 *iT*⁺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세계 로봇대회 수상을 훨씬 넘어서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광운대는
이공계를 중심으로 인문, 사회, 문화의 융합을 통한 *iT*⁺형 인재로 앞서가겠습니다.



입학처 홈페이지 주소 : <http://iphak.kw.ac.kr>

입학 관련 문의 : 입학관리팀 02)940-5640~3/입학사정관실(학생부 종합 전형) 02)940-5797~9



광운대학교
KwangWoon University



광운대학교
KwangWoon University

01897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0(월계동)

Tel. 02-940-5114 www.kw.ac.kr

광운을 닮다 광운을 담다

Kwangwoon
Newsletter

Vol. 110

광운대학교를 모교로 둔 광운인은 같은 울타리에서 꿈을 키운 형제들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더 높은 곳을 향해가는 광운인, 여러분의 성공은 곧 광운대학교의 성공입니다.